



사단법인 한국북큐레이터협회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 한라일보사 관계자들이 30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도서나눔 업무협약'을 맺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 한국북큐레이터협회-초록우산 어린이재단-한라일보 도서나눔 협약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길...”

도서 5000권 기부로 첫 발... 도내 다문화 가정에 전달 북큐레이터협회 “오늘 협약 아동도서문화 확산 변곡점”

형편이 어려운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도서를 기부하며 독서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북큐레이터협회가 제주지역 아동을 위한 첫 도서 나눔 운동을 시작했다. 사단법인 한국북큐레이터협회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 (주)한라일보는 30일 한라일보사 대회의실에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도서 나눔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한국북큐레이터협회는 회원사와 함께 도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도서 나눔 운동을 실천하고, 한라일보는 이 운동에 참

여한 회원사를 발굴·홍보한다. 또 어린이재단은 지역 사회망을 활용해 취약계층 아동에게 도서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한다. 이날 한국북큐레이터협회는 동화책 등 도서 5000권을 기증하는 것으로 제주지역 도서 나눔 운동의 첫 발을 내디뎠다. 도서 5000권은 협회에 소속된 (주)카이로디자인그룹의 이기선 대표 등 4개 회원사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어린이재단은 이 도서를 도내 다문화 가정 아동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용곤 한라일보 대표 이사는 협약식에서 “도서를 기부해준 협회 측에 큰 감사를 드린다”면서 “아동 도서 나눔 운동이 지속될 수 있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종관 한국북큐레이터협회 이사장은 “제주지역 아동을 위한 도서 기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오늘 맺은 협약이 아동 도서 문화 확산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김희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장은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보다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박 이사장의 바람처럼 아이들이 평소 책을 가까이해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뜻 책을 내놓은 이기선 (주)카

이로디자인그룹 대표는 기부를 결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평소 협회가 펼치고 있는 도서 나눔 운동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었다”면서 “때문에 협회의 지원 요청에 고민 없이 도서를 기부하게 됐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도서 나눔 운동에 계속 참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라일보는 도서를 기부한 이기선 대표에 감사패를, 아동 도서 나눔 운동을 이끌고 있는 김미정 한국북큐레이터협회 회장에게 공적패를 전달했다. 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 본부는 김연옥 한국북큐레이터협회 부회장과 성미희 서점문화발전소 소장에게 각각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자치경찰, 지문 사전등록제 추진

올해 1742건 등록... “실종 예방·신속 발견 효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병설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원아의 실종 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질환자를 대상으로 지문과 얼굴 사진 등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게 실종자를 발견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미등록 실종자의

경우 발견까지 평균 31.6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지문 사전등록 시에는 약 43분으로 나타나 실종자 신속 발견에 상당한 효과가 입증됐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도내 병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을 방문해 원아들의 지문 등록을 접수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9개 유치원의 원아 311명을 비롯해 안전Dream앱 이용 868건, 지구대·파출소 내방 348건, 치매안심센터 215건 등 올 들어 7월 현재 1742건의 지문을 등록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수형기록 발급, 4·3 진상규명에 기여”

도, 지난 4월 국가기록원과 업무협약... 45건 발급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4월부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업무 협업을 통해 4·3수형기록을 직접 발급하며 수형인과 유족의 명예회복 및 진상 규명에 기여하고 있다. 30일 도에 따르면 7월말 기준 4·3 수형기록 발급은 45건(마포 3, 인천 1, 대구 2, 대전 2, 광주 5, 목포 22, 전주 3, 기타 7)이다. 이전까지 수형인이나 유족이 4·3 수형기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전 시 소재 국가기록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직접 방문·수

령해야 했다. 도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기록원과 업무협약을 체결, 제주에서 4·3수형기록을 발급하고 있다. 최근 생존 수형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재심청구소송을 제기하고, 4·3유족회도 재심을 청구하는 등 수형 기록 발급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도는 신청인들의 주장이 형무소 복역자료가 발굴되며 실제로 확인됨에 따라 4·3수형인의 진상규명 및 재심청구 소송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백금탁기자

오늘의 날씨와 생활

7월 31일 금요일 음 6월 11일 (3월)

기상정보



Table with weather forecast for Jeju, Seongsan, Goseong, and Seogwipo.

구름 많음

제주도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25℃, 낮 최고 기온은 29-33℃의 분포를 보이겠다. 산지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박무가 낄 것으로 예상돼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1.0m로 일겠다.

Table with sunrise/sunset times and moon phases for Jeju.

주간예보

Table with daily weather forecasts for tomorrow and the day after.

생활·안전 기상정보

Table with UV index and other safety-related weather information.

전통시장 감시다!!

Table with traditional market inspection dates for various markets.

Table with traditional market inspection dates for various markets.

제주 이번주말 낮엔 폭염 밤엔 열대야

기상청 “30℃ 웃돌 듯” 31일 산지중심 비 예보

지난 28일부터 시작된 폭염이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제주지방기상청은 8월 1일까지 제주지역은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30℃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30일 예보했다. 현재 제주 북부와 서부, 동부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당분간 한라산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30-33℃까지 오를 전망이다.

주지역 장마가 길었던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주변에 찬 공기가 정체해 따뜻하고 습한 공기인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상하지 못하고 일본 남쪽에 머무른 영향 탓에 정체전선이 주로 제주도 남쪽 해상-남해안에 위치했고 또 이 정체전선이 제주도 부근에서 자주 활성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제주지역 장마 기간은 49일로 1973년 이후 가장 길었으며 이 기간 실제 비가 온 날은 29.5일로 1974년과 함께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Advertisement for 'Love by Love' (사랑으로 지은 집) with a thumbs up icon and text about supporting the elderly.

Large advertisement for Jeju Dongbu Shinhye Do Nam Branch opening announcement, including date (2020.08.03), location, and interest rate (2.2%).